

토론문 (이재원)

2017.5.24. 아산정책연구원

서병훈, 『위대한 정치.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책세상, 2017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밀과 토크빌이 비록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귀한 책에 대한 토론을 허락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대학 시절 영국사 전공자이신 선생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학 수업 때도 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셨고, 제가 박사 학위 취득 이후 귀국하여 최근까지 선생님을 뵈 때마다 밀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 언급하시곤 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한잔 드신 후에는 술집 종업원들에게도 “너희들이 존 스튜어트 밀을 알아?”라는 말을 어김없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조금은 우스갯소리지만 제게는 밀과 밀의 사상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경우, 제가 속해 있는 한국프랑스사학회 회장이신 전북대학교의 이용재 선생님께서 번역한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으로 저에게는 조금 친숙한 인물입니다. 역사가인 저에게 서양 근대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프랑스혁명과 이에 대한 토크빌의 입장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서병훈 선생님의 저서, <위대한 정치.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는 “근대 자유주의의 기틀을 닦은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한 저서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을 분석한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1995)와 『자유의 미학』(2000) 등을 출간하신 바 있고, 현재는 밀과 토크빌의 정치사상을 민주주의, 자유, 종교 등의 관점에서 비교, 해석하는 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밀의 『자유론』, 『공리주의』, 『여성의 종속』, 『대의정부론』, 『종교론』, 『사회주의론』을 우리말로 옮긴 ‘존 스튜어트 밀 선집’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본 저서와 관련해서 선생님은 밀과 토크빌이 생각과 행동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선생님은 밀과 토크빌이 “옳은 것을 알고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적은 없는지 항상 걱정”하는 (실천적 혹은 참여형) 지식인의 전형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정치 활동은 그들이 추구한 정치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지요.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토크빌은 ‘위대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소명에 몸을 던진 ‘참여 지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밀과 토크빌의 정치 참여는 역사의 흐름에서 작은 이야깃거리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정치 생활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회한에 잠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의 이름에 걸맞은 정치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까?”, “밀과 토크빌의 정치경험에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등에 대

해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의의 지름길”임을 강조하시고, “자신의 글 속에 시대와 국가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지식인이 자유인의 도리를 다하는 최선의 길인 듯”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정치학자’로서의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 참여 말고도 사회 참여와 현실 참여의 또 다른 방식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현실이 유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정치 참여 말고, 다시 말해 정치에 입문하는 것 말고 사회에 빛진 자로서 학자나 지식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는 2차 대전 당시 53세의 나이에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구실의 정적 속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국가가 소위 위기상황이고, 지식인들에게 현실 참여가 요구될 때 침묵하는 것이 과연 지식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식(글)과 정치, 이론과 현실 사이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화할 수 있겠는지요? 지식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학문의 영역으로만 한정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현실 정치 혹은 현실 참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어떤 식의 고민이 필요한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2. ‘위대한 정치’란?

토크빌은 줄기차게 ‘위대한 정치’를 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함이라는 개념은 그의 새로운 자유주의의 중추가 되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토크빌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지향했는데, 둘은 이런 이념의 궤도를 ‘위대한 정치’를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위대한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중을 상대로 직접 위대한 정치를 실천하려 했다고 말씀하시고, 시대의 아픔을 정치 참여로 갚아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실패했던 이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가 ‘위대한 정치’인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당 안에서 심각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토크빌이 꿈꾸는 위대한 정치의 본령이었다면, 지식인은 역시 글을 써서 역사에 보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해준 토크빌과 밀의 정치 참여를 위대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은지요?

위대한 정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토크빌이 혹은 범위를 넓혀 밀 역시 강조했던 ‘위대한 정치’란 한국사회에서 무엇이라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대중의 정치 참여

밀은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꿈꾸었으며, 토크빌은 정치의 장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할 당위성을 누구보다 먼저 강조한 사상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밀은 정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대중 친화적인 능력”을 요구했고, 토크빌은 “사람들을 한데 묶고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끄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고 기술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은 인민이 주권을 가지되, 유능한 지도자의 발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토크빌은 대중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크빌이 “보통선거권의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혁명과 공화주의를 매우 두려워했으며,

평등 시대의 도래에 대해 본능적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상가의 이와 같은 “다수의 횡포에 대한 두려움”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듯한 이 두가지 입장을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대중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주체적 역량이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두 사상가의 입장은 자기 모순적이지는 않는지요?

4. 이 시대에 주는 함의는?

앞의 질문들과도 연결되는 혹은 조금은 중복되는 질문이라고 여겨지는데, 밀과 토크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이 시대 지식인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요? 또한 서양의 학문과 담론, 그리고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에게 던져주는 이들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